

돼지장기로 만든 소시지 케이싱 유럽에 첫 수출

도내기업 '우리비엔비', 의약품원료·식용축산물 개발

도내 의약품 원료·식용축산물 개발 기업이 천연 돈장(돼지장기)을 이용해 만든 소시지 케이싱을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이하 재단)은 재단으로부터 기술력을 평가받아 투자유치에 성공한 ㈜우리비엔비(대표 박상협)가 개발·생산한 소시지 케이싱이 오는 8일 유럽에 첫 수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천연 소시지 케이싱 수출은 한국산 식용축산물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최초 사례로, ㈜우리비엔비는 도축 후 바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케이싱의 신선도 및 탄력성에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알바니아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출은 3월 첫 수출을 시작으로 매년 550톤의 불량이 수출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돼지부산물 중 두내장 가격(1두당)은 2018년 1만784원에서 2021년 2월 8,833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부산물 판매비용으로 도축비용을 일부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 부산물의 가격 하락은 돼지사육농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비엔비는 돈장(돼지장기)을 활용한 바이오 및 식품사업을 발굴해 축산부산물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상협 대표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천연 소시지 케이싱을 국내에서 제조하고 해외로도 수출해 천연 케이싱만큼은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박철웅 이사장은 "우리 농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를 통한 금융연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비엔비와 같은 기술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농식품 기술사업화 환경을 견고히 다져, 우리나라 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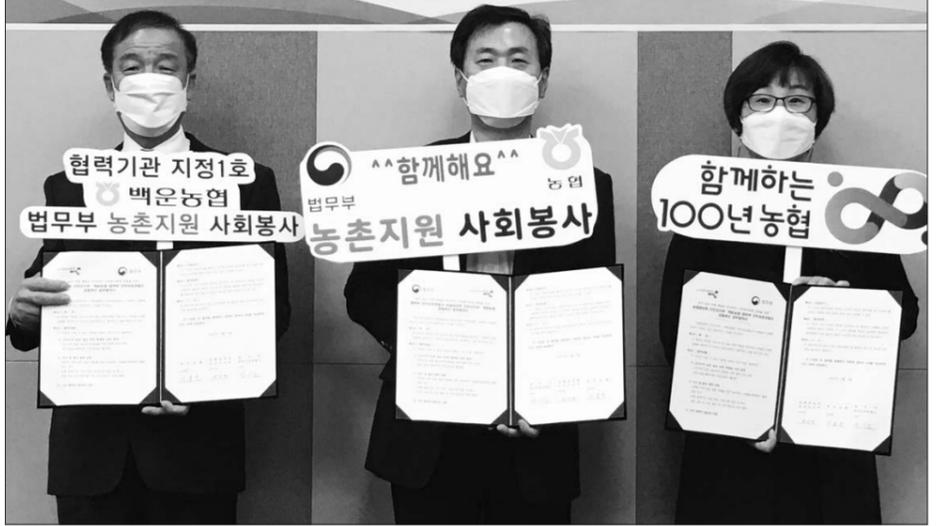
과 이번 유럽수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100억원 상승, 신규 일자리 창출 17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우리비엔비는 재단의 기술평가 활용에 외부 투자기관으로부터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또 화장품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재단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 개선 및 설비도입도 지원받았다.

박상협 대표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천연 소시지 케이싱을 국내에서 제조하고 해외로도 수출해 천연 케이싱만큼은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박철웅 이사장은 "우리 농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를 통한 금융연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비엔비와 같은 기술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농식품 기술사업화 환경을 견고히 다져, 우리나라 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일자 : 2021. 3. 4.(목) 장소 : 동협진안군지



농협 진안군지부·백운농협은 4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돕기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안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족한 농촌 일손문제 해소 적극 협력

농협진안군지부·백운농협, 전주보호관찰소와 협약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역 농촌일손 지원이 골자

농협진안군지부(지부장 정미경·백운농협(조합장 신용빈)은 4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돕기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안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사회봉사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모여 관

내 지역 농가로 이동하는 방식에서 현지 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지 농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 <관련기사 16면>

운영방식 변경은 전주보호관찰소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보호관찰소의 직접집행 방식의 농촌지원보다 작업시간 확대 및 현장에

서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족한 농촌 일손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연계해 농업인 일손돕기와 재능봉사(도배, 집고치기 등) 지원 등 협력 제고를 위해 이루어졌다.

전주보호관찰소는 협약 이후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정기적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조합원 접근성·편의성 극대화

고창농협 경제사업부 준공
주1동 영농자재백화점서
1000가지 영농 자재 갖춰
고창읍 고인돌대로 인접



고창농협은 최근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6-8번지에서 고창농협 경제사업부 준공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은 최근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6-8번지에서 고창농협 경제사업부 준공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고창농협 경제사업부는 부지면적 2,285㎡(약 691평)에 주1동-영농자재백화점(약 249평), 주2동-비료창고 495㎡(약 150평), 주3동-경제사업부 사무실 142㎡(약 43평) 규모로 신축했다.

특히, 주1동 영농자재백화점에는 약 1,000가지의 영농에 관한 다양한 자재를 갖추고 있으며, 고인돌대로를 인접하고 있어 이용하는 농업인

및 조합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은 "고창농협 경제사업부 신축으로 하나로 마트, 주유소가 한곳으로 집중되어 경제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및 조합원, 농업인이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고창농협은 2020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약 24억원에 달성해 10.79%를 배당했으며, 이번 경제사업부 준공을 통하여 한 단계 성장하는 고창농협을 만들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계속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 호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희망'

지난 2019년 분양율 50% 상회 조만간 70% 넘길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작지만 희망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산업단지로서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면적 232만㎡(70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2014년부터 공급을 추진했으나 수도권과의 거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그동안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LH,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식품진흥원이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에 분양율 50%를 상회한 이래 기업 입주자 계속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분양율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IC와 인접하고 기업과 연구소 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가

능하도록 구성된 산업단지로서 원료 조달부터 인력, 마케팅, 검사분석, 시제품 생산, 패키징, 수출까지 식품기업 성장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시설장비와 식품전문 기술 및 생산 인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소필자와 사업, 유치업종 변경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관측활동을 벌여 218억 원의 용지를 공급했고, 2021년에도 5개 업체(유푸드, 예가원, 케이앤에스, 미담, 머쉬리인) 41억 원 2만6,000㎡의 용지를 공급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외국인투자자격을 제외한 국내기업 입주대상용지가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서 동북아 최초 식품전문 산업단지로서 글로벌 식품 수출 거점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 인허가 및 산업단지 조성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자

'산림기술자격증 대어 금지'

산림청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결과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어 등 불법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따라 대어금지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산림기술자격 관련 불법행위 행정처분을 산림청 전체56건 중 서부청에서 22건을 집행했다. 자격증 대어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게 만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자격증을 대어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신 디지털 육종 기술 활용

농식품부, 종자업체 대상 컨설팅·전문 분석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종자업체가 최신 디지털육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육종컨설팅 및 전문 분석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생명 빅데이터 정보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육성계통 선발 방법, 타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계통 선발법 등에 대한 컨설팅과 차세대 유전자분석, 오믹스 등 맞춤형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20개 종자업체를 선정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종자업체는 디지털육종 관련 컨설팅기업 및 전문분석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28일 최종 지원대상 종자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육종지원에 대한 유전자분석, 육종과정 중에 발생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 기업 맞춤형 분석 프로그램

등과 함께 디지털육종 관련 실무자 교육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종자업체들은 다양한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을 활용해 육종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육성품종의 상품화율을 5%에서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외 시장수요 및 트렌드에 대응한 내재해성, 고기능성, 내병성, 가공적성 등 복합적인 기능성을 갖는 글로벌 수요 맞춤형 신 품종을 신속·정확하게 육성·선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민욱 종자생산업과장은 "기존의 전통육종에서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종자업체들이 종자관련 디지털육종 원천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돼지카드 경품이벤트
3주차 당첨자 발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사용 고객을 위해 진행한 '새해맞이 경품이벤트'의 3주차 당첨자를 4일 발표했다.

LG스타일러 당첨의 주인공은 총 3명이며, 추가로 전주사랑상품권 충전 이벤트 4만점에 당첨된 100명의 고객들은 2월 24일 인센티브 충전이 완료된 상태다. 당첨자 중 한 명인 강모씨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은행을 조금 더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배꽃눈 트기 전·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적용약제 뿌려야'... 과수화상병 방제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4일 전국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를 할 것을 당부했다.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 록약제(동계화합물)를 뿌려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5월 10일~1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한다. 그 다음 10월 10일~1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그대로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숙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한다. 석회유황합

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데 섞어서 쓰면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계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긴다.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동계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092농가 655.1헥타르(ha)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특히 2020년에는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 새로 6개 시·군이 추가돼 전국 17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익산에서 발생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상호금융 추진
우수사무소 시상식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3일 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부문 우수사무소 시상식을 실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익산농협(7,000억 원, 조합장 김병욱), 북전주농협(3,000억 원, 조합장 이우광), 순경축협(1,000억 원, 조합장 고창인), 대성농협(1,000억 원, 조합장 김민성), 진봉농협(500억 원, 조합장 노종열)이 상호금융 대출 금 달성탑을 각각 수상했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은 지역농·축협 건설경영상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불구하고 어려운 금융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금융환경 속에서 건전여신 추진에 힘써준 임직원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